

쉬운 우리말을 쓰자

2023년 여름호

라운드 테이블과 원탁

쉬운 공문서 쓰기

제3회 정부, 공공기관, 언론의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

만화로 보는 쉬운 우리말

내 집 마련, 우리말 마련

쉬운 우리말 사전

2023년에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매거진



쉬운우리말로쓰자

2023 여름 통권 7호



펴낸날 2023.6.30.
발행인 이건범
기획 한글문화연대
편집 김명진 유일환
디자인 방형식디자인
펴낸곳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ISSN 2951-0112 (32)
© 2021, 한글문화연대

물너울은 “바다와 같은 물에서 크게 움직이는 물결”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여름을 맞아 독보적, 독창적인 순우리말이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물너울처럼 요동치길 바라는 의미를 형상화해 표지에 담았습니다.

차례

- 시작의 시간
- 03 라운드 테이블과 원탁 - 이건범
- 생각하다
- 04 [알기 쉬운 우리 새말] 국산 영어 그린 오션 대신 친환경 시장 - 김정희
- 바라보다
- 06 'FOMC'를 '공시위'로 부른다면? - 원승연
- 전하다
- 10 'A', 한글로 표기할 수는 없을까? - 이성민
- 만들다
- 14 '우리말 약칭 제안 모임', 나서서 줄임말을 만든다고? - 이건범
- 쉬운 공문서 쓰기
- 16 공문서에는 정답이 있다
- 공모전 입상수기
- 20 나는 대한민국의 안내원이다! - 북돋움상 남윤숙
- 23 그건 그냥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 북돋움상 김영주
- 공모전 입상영상
- 26 코로나 뉴스 속에서 쏟아지는 외국어... 무슨 말인가요? - 보람상 염소



- 만화로 보는 쉬운 우리말
- 28 세종대왕과 쉬운 우리말 쓰기 - 최솔
- 사례 알아보기
- 34 내 집 마련, 우리말 마련 - 유일환
- 38 영상으로 보는 쉬운 우리말
- 40 소식 엿보기
- 42 쉬운 우리말 사전
- 44 2023 새로 다듬은 말
- 46 아리아리 새말대모함
- 48 2023 꼭 바꿔 써야 할 말 50개
- 50 국립국어원 및 전국 국어문화원 연락처

라운드 테이블과 원탁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많은 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던 분이 전화를 걸어 물어왔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게 뭐죠? 라운드 테이블 토론?”

“소수 발표자와 토론자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토론하는 거.”

“아, 그럼 원탁 토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주변에서 하도 라운드 테이블, 라운드 테이블 해대니까 ‘원탁’이라는 말이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왠지 허전해하시더군요. 여섯 음절이던 라운드 테이블에 비해 원탁은 두 음절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익숙함이란 이처럼 우리의 정신에 매우 강력한 힘을 미칩니다. 방송과 유튜브에서 많이 들리던 노래를 제목도 모른 채 흥얼거리는 일부터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에도 없는데 사무실까지 차를 몰고 온 아찔한 경험까지.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과 신문 보도에서, 광고에서, 주변 사람에게서 자주 들은 외국어 단어가 어느새 우리말을 제치고 머릿속 사전의 즐겨찾기에 올라가 버리면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말은 기억 저 너머로 아득해 집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어 단어가 문서나 보도에서 자리를 잡고 나면 그걸 우리말로 고치려 할 때 자연스레 반발이 생기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휘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정보 접근에 방해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어색함을 견디면서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싱크홀 대신 땅꺼짐, 블랙 아이스 대신 도로살얼음, 모빌리티 대신 이동수단, 그루밍 성범죄 대신 환심형 성범죄 등으로 말이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말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이 어색함을 넘어서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사용하면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사전에 올라갑니다. 쉬운 우리말 사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종의 자부심까지 맛볼 수도 있을 겁니다. 쉬운 우리말에 익숙해지기. 다가오는 한글날을 겨냥하여 한번 도전해 보세요. ☺



알기 쉬운 우리 새말

국산 영어 **그린 오션** 대신 **친환경 시장**



김정희(한글문화연대 기획위원)



특정 산업을 시장 점유 정도, 발전 가능성 등에 따라 색깔로 나타낸 영어 명칭들이 있다. 아직 경쟁자가 없는 유망시장을 가리키는 ‘블루 오션’, 경쟁이 심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레드 오션’, 기존 레드 오션에 발상의 전환을 꾀해 새로운 시장 가치를 개척하는 ‘퍼플 오션’이 그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미 이들 중 ‘블루 오션’을 ‘대안 시장’으로, ‘레드 오션’을 ‘포화 시장’으로 다듬어 선보인 바 있다.

아직 ‘퍼플 오션’은 우리 새말로 다듬어 내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색깔’이 등장했다. ‘그린 오션(green ocean)’이다. ‘그린’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로 뜻을 짐작해보시라. 농산물 시장? 그럴 수도 있겠다. 실제로 2006년 한 신문에서 그린 의미로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 이 용어는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뜻한다.

영어에서 ‘친환경’은 ‘에코-프렌들리(eco-friendly)’ 혹은 말머리에 ‘에코’만을 붙여 표현하지만 ‘그린’ 역시 보편적으로 쓰인다. 친환경 단체로 유명한 ‘그린 피스’나 ‘친환경 에너지원’을 뜻하는 ‘그린 에너지’ 등이 익숙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그린 오션’도 영어권에서 쓰이는 말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영어권에서 ‘그린 오션’은 ‘녹색’이라는 단어의 원뜻 그대로 ‘녹색 바다’라는 뜻이다. 친환경과 관련된 뜻은 없다. 환경친화적 산업, 혹은 친환경 시장을 의미하는 ‘그린 오션’은 ‘국산 신조어’인 셈이다.

언론에서 ‘그린 오션’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05년 7월 <경향신문> 기사이다. 당시 경제 전문가 인터뷰에서 “경제와 환경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는 ‘그린 경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발언에 기자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 오션’이 요구된다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인 것이 첫 사례다. 이후 한동안 쓰임새가 잦지 않았던 이 표현은 2000년대 말 무렵부터 시민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친환경 상품이나 사업이 각광을 받으며 자주 쓰이게 되었다. 언론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음료 가운데 가장 먼저 비닐 라벨을 제거한 생수업체는 이에스지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친환경을 기반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린 오션’ 진출에 앞장서고 있다.”(<매일경제> 2021년 10월) “그린 오션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부터 자동차, 전자, 금융,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경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이투데이> 2021년 6월)

이외에도 친환경과 관련해 ‘그린’이라는 표현이 비 온 뒤 대나무 숲 돛 돛 등장했는데, 이미 많은 ‘그린~’이 새말로 다듬어져 발표되었다. ‘그린 모빌리티’는 ‘친환경 이동 수단’, ‘그린 테일’은 ‘친환경 유통’, ‘그린웨이’는 녹색길, ‘그린 시티’는 ‘녹색도시’, ‘그린슈머’는 ‘녹색소비자’ 등 대부분 ‘친환경’ 혹은 ‘녹색’으로 다듬어졌다.

그런 맥락에서 ‘그린 오션’도 ‘친환경’ 혹은 ‘녹색’으로 바꾸어 넣고, ‘오션’을 ‘시장’ 혹은 ‘산업’으로 대체해 조합한 새말을 후보로 올렸고, 그 중 설문조사 결과 88.1%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 ‘친환경 시장’이 새말로 결정되었다(‘녹색 산업’이 76%, ‘녹색 시장’은 67%).

한편 쓸쓸한 사실은 영어권에서도 쓰지 않는 ‘국산 영어’, 불필요한 영어 신조어를 국민들에게 ‘적극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정부 관련 기관들이 여전히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지정 국가환경교육센터 누리집은 ‘새 환경 용어’라며 “최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개념, 그린 오션이 등장했다”고 홍보하는가 하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그린 환경일기’를 공모하기도 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역시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경계하고, 리얼그린(Real Green)을 실천해야 해요”라는 글과 함께 ‘리유저블컵’, ‘리필스테이션’ 같은 영어가 등장하고 있다.

환경만 사랑해서 쓰겠는가. 우리말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검색을 계속하던 중 앞에서 말한 환경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초록작당소’라는 단어와 마주쳤다. 정부가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장비와 공간에 붙은 이름이었다. 이 얼마나 낯익고 발랄한가. 앞으로 ‘그린 어퍼고 센터’ ‘에코 어퍼고 플레이스’ 대신 이런 이름을 보다 자주 접할 수 있길 바라본다. 🌈

※ 새말 모임은 어려운 외래 ‘다듬을 말’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새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문학, 정보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FOMC’를 ‘공시위’로 부른다면?



원승연(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 언론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자주 보도한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줄여 부르는 ‘미 연준’이라는 이름은 이미 익숙해졌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에프오엠시(FOMC)라는 이름이 자주 나온다. 금융 전문가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정체를 추측할 만한 아무런 실마리가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암초일 것이다. 이 이름도 ‘미 연준’처럼 우리말로 뭐라고든 줄여 부르면 안 될까? 먼저 ‘FOMC’의 정체부터 살펴보자.

통화정책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록 중앙은행이 이를 담당 하더라도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를 두어 결정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회사의 지배구조에 비유할 때 한국은행이 집행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이사회인 셈이다.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우리와 많이 다르다.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집행기구인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이 12개 있으며, 연방정부 내 독립기구로 연방 차원의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존재하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다. 연방준비은행과 연방준비이사회의 기능은 분리돼 있으나, 이 둘을 합쳐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같은 집행기구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준’이라고 지칭하면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이사회, 연방준비제도 중 어느 하나 또는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특정 연방준비은행이나 연방준비이사회를 지칭해야 한다면 ‘뉴욕 연준’ 또는 ‘연준 이사회’처럼 구체적으로 가리켜야 한다.

FOMC는 통화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약칭으로, 이사회에 해당하는 기구다.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최종 의사결정 회의체 기구다. 넓게 본다면 이 기구도 연방준비제도의 일부이므로 그 행위 주체를 ‘연준’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특정 위원회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가령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다면 그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지만, 대체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표현한다.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달라서 이를 직역할 것인가, 아니면 고유명사로 보아 그 나라의 언어 또는 약칭으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공식 누리집)

표현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전문가 처지에서는 괜한 번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해 외국의 원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사실 미국 통화정책의 주체를 간단히 ‘미 연준’이라고 표현하면 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현학적인 취향의 사람들이 굳이 FOMC를 들먹이는 듯하다. 꼭 써야겠다면 이를 FOMC라고 부르지 아니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줄여 ‘공시위’처럼 우리말 약칭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전문가적 정확성보다 대중의 이해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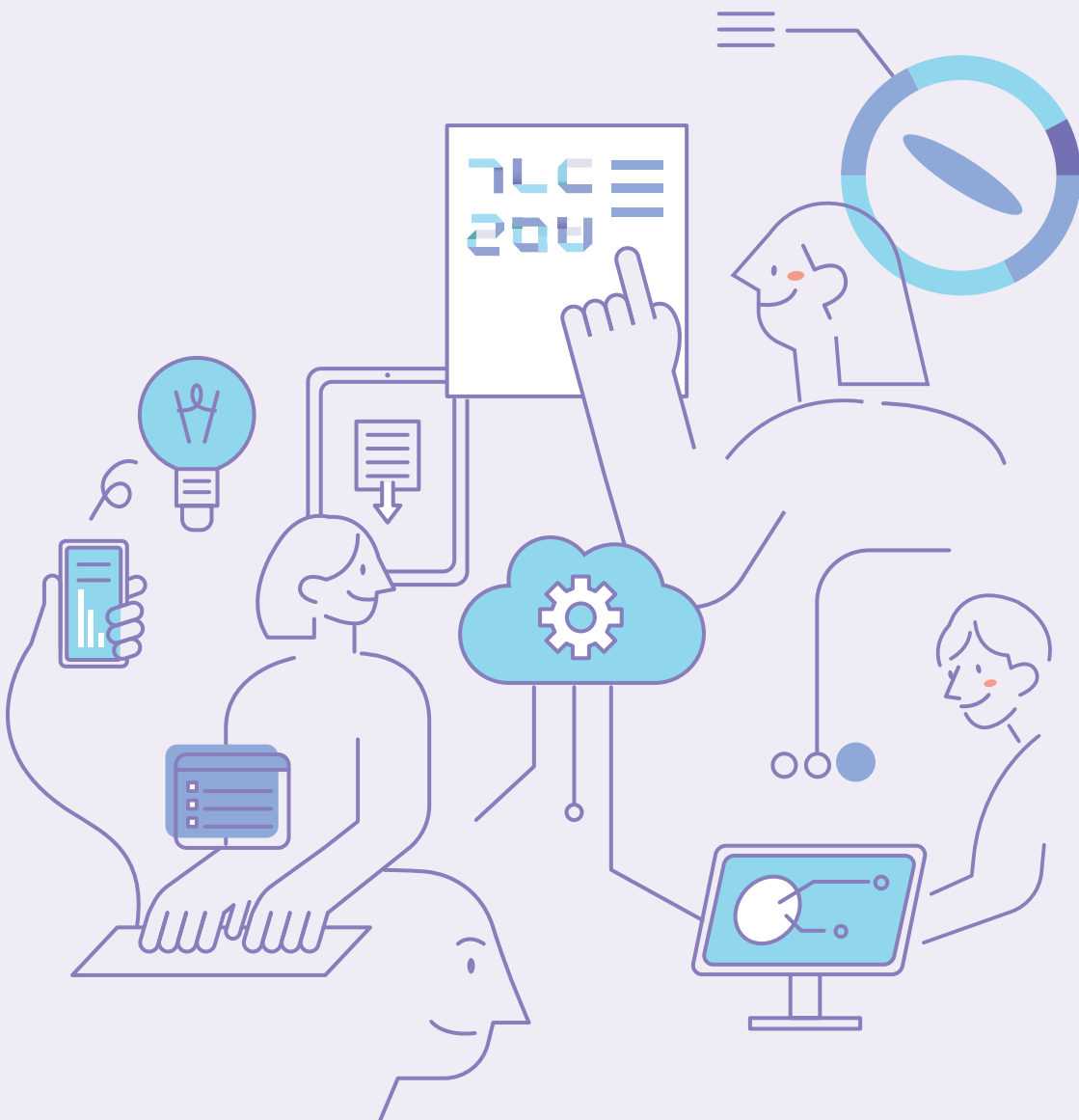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문적 용어가 대중화 될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칭 표현은 경제학자보다는 국어학자나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용어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인 듯하다. 경제학자로서는 FOMC를 표현하는 국어의 규범이 정해진다면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

‘A’, 한글로 표기할 수는 없을까?

언론 보도에서 로마자 사용을 줄일 수는 없을까.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가 일반인이면 언론은 통상 이들의 신원을 그대로 밝힐 수 없다. 이에 언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신원을 익명화한다. 여러 가지 익명 보도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 익명의 대상자를 ‘A씨’, ‘B씨’ 등으로 보도하는 방식이다. 굳이 로마자 표기로 익명화할 필요가 있을까?



이성민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0기)



같은 내용도 언론마다 표기 방식 달라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최근 12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표예림 씨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세계일보

세계일보

"표예림 학폭 인정하면 軍서 잘려...군무원, 가해자들에 '사과 절대 안돼' 조

종"

사회>사건_사고 | 사회>이슈

2023-04-27 · 김수연

다만 남 씨가 이들 3명에게 "절대 학폭 사실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공개사과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나왔다. 현재 남 씨는 군무원이기 때문에 학폭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게 카라콜라 측의 설명이다.

매일신문

매일신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인정하면 군무원 잘려"...다른 가해자들 '사과 막았다'

주장도

사회>사회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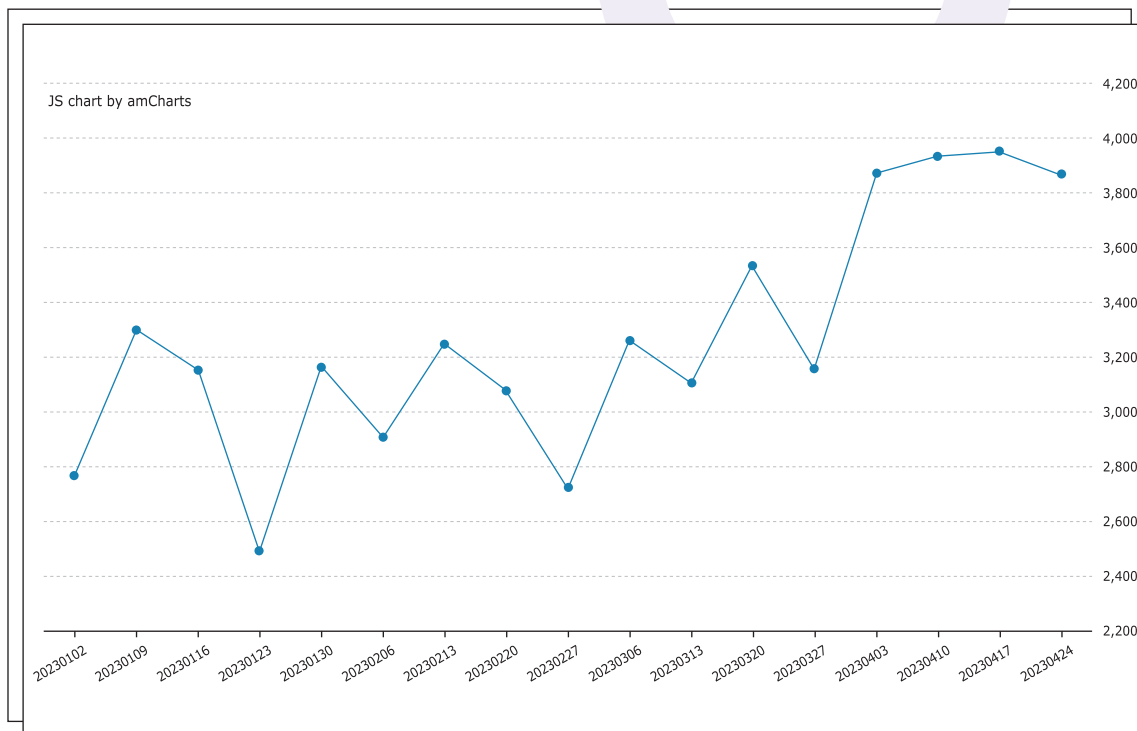
2023-04-27 · 김재환

A 씨가 "절대 학폭 사실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나머지 3명의 사과를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카라콜라 측은 "현재 A 씨는 군무원 신분이므로 만약 학폭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라도 받게 될 경우에는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인물에 대해 한 언론은 인물의 성을 따 '남 씨'라 익명화하였다. 반면 다른 언론은 'A 씨'라 익명화하였다. 그런데 여러 기사를 살펴보면 로마자 익명화가 훨씬 많이 눈에 띈다.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로마자 익명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까? 다음 그래프는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17주의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 중 사회 분야에서 'A 씨'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건수를 주간 그래프로 나타난 지표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매주 2천여 건이 넘는 기사에서 인물의 익명화에 'A 씨'를 사용하고 있으며, 17주 동안 42,262건의 기사에서 익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A 씨'로 표기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사회 분야에서 발행한 239,839건의 기사 중 약 17.6%에 해당한다.



현재 익명화 방식의 문제점

왜 언론은 ‘A씨’, ‘B씨’라고 로마자 형식의 익명 표기를 하는 것일까?
 우선 언론의 익명 보도가 언제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이전까진 언론의 실명 보도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1988년 이혼 소송 주부의 ‘청부 폭력 오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실명 보도에 대한 경각심에서 익명 보도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사건 보도에 대한 언론의 익명화 규칙은 현재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같은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마저 다른 익명화 방식을 쓰는 모습을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언론이 익명화에 로마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 씨’, ‘이 씨’처럼 성씨를 쓰면 사건이 알려질 경우 해당 관계자를 추정할 수 있어 로마자를 사용하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보도기사에서 로마자로 된 익명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언론은 한글로 익명화하기도 한다. ‘김 모 씨’, ‘ㄸ 씨’ 등이 대표적이다. 간편하면서도 유용하게 대상자의 신원을 가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문제는 존재한다. 기사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누구를 지목하였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언론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러니 언론은 이름은 물론 당사자의 연령, 주소, 직업, 직장 등을 표시함으로써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칙상 ‘김 씨’ 등의 익명화도 사용할 수 없다.

좋은 우리말 익명화를 위해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익명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ㄱ 씨’, ‘ㄴ 씨’, ‘ㄷ 씨’로 익명화하는 방식이다. ‘A씨’, ‘B씨’처럼 순서를 나열하는 것 외의 기능을 하지 않으니 신원이 노출될 걱정이 없어 익명화 방식에 가장 이상적이라 여겨진다. 혹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관련된 지시어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노인’, ‘어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될 수 있다. 혹은 아예 가명으로 보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무분별한 로마자 사용으로 한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로마자 사용을 줄이고 한글 사용을 늘려, 한글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이 앞장서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언론의 익명화 방식에 로마자 대신 한글이 쓰이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수집하는 언론사

(전국일간지(11), 경제일간지(8), 방송사(5), 지역일간지(28), 전문지(2) 총 54개 언론) 대상.
세부 내용은 (<https://www.bigkinds.or.kr/v2/intro/news.do>) 참조

** 대법원 1998.7.14. 선고 96다17257 판결

*** 정대기,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004, 경상대 법과대학원)

‘우리말 약칭 제안 모임’, 나서서 줄임말을 만든다고?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올 3월 10일에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이 뜻을 모아 ‘우리말 약칭 제안 모임’을 꾸렸다. 국립국어원도 협의에 참여한다. 각 단체에서 추천한 연구위원들이 모여 4월 7일에 첫 회의를 열어 운영 방안을 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영문 이름 약칭인 ‘오이시디(OECD)’로 쓰는 일이 많은데, 이 대신 ‘경협기구’와 같이 우리말로 줄인 이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게 잘 먹힐 일인지, 아니면 욕 먹을 일인지 모르겠다. 무수한 줄임말 신조어 때문에 정신 사나워서 줄임말이라든 손사래치는 분이 많은데, 나서서 줄임말을 만들겠다고 말이다.

줄임말 문화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그 말뜻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 우선 소통이 어렵고 그 다음엔 내가 뭔가 뒤처지는 건가 싶어 주눅이 든다고 한다. 모르는 말이 등장할 때 누구나 흔히 겪는 사정이다. 그렇지만 이건 못 알아듣는 줄임말이 등장했을 때의 일이고, ‘기재부(기획재정부), 대입(대학입시), 경북(경상북도)’처럼 이미 알고 있는 줄임말이 나온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용어들이 줄임말이라는 자각도 별로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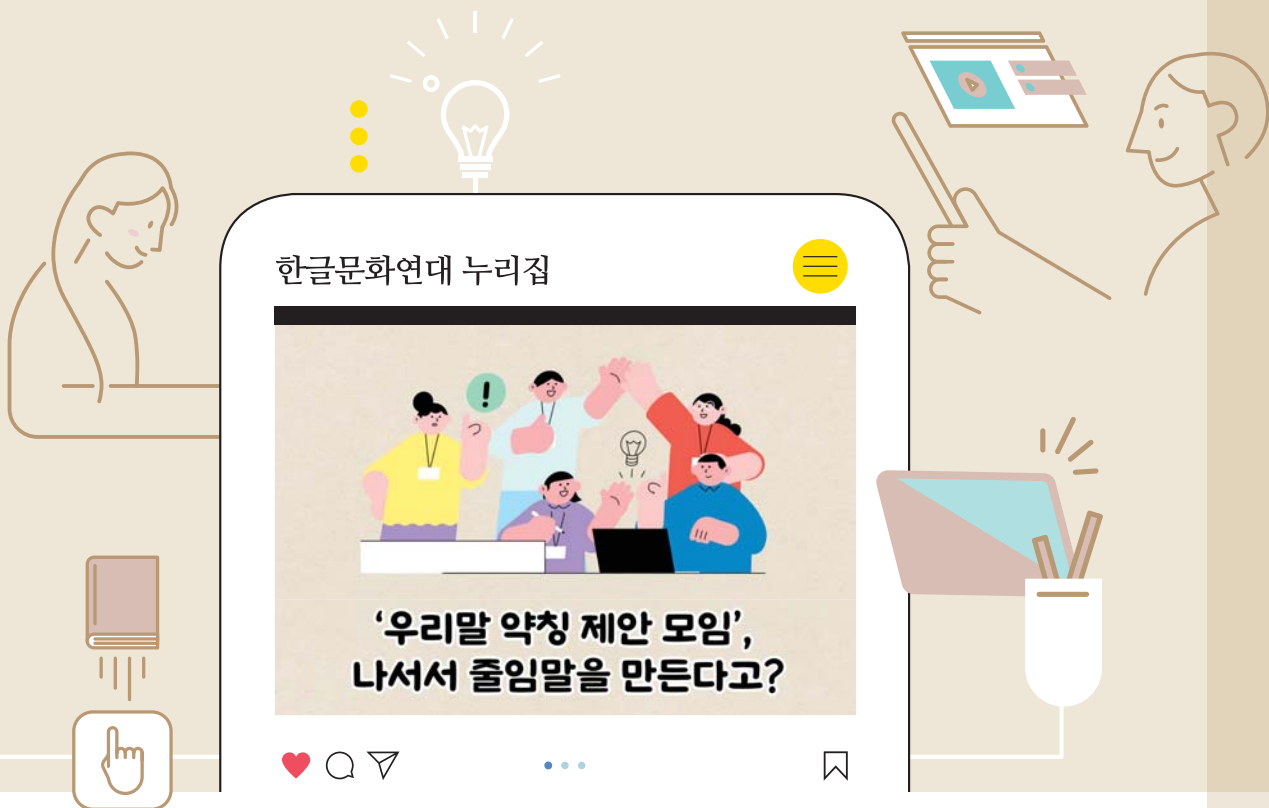
그러니 **새로 나온 줄임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말의 출현 횟수, 접촉 횟수,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자주 쓰는 말이라면 외국어건 상말이건 차별어건

혐오 표현이건 모두 정당하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살이의 변화가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피워갈지 고민하는 일은 여전히 쉽고 바른 소통을 꾀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는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줄임말 문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말을 줄여 쓰는 것이 좋냐 안 좋냐 하는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말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의미가 어렵고 낯선 말은 되도록 줄여 쓰지 않는 게 좋다. 말을 줄여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하려는 ‘경제성’과 말이 길더라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려는 ‘소통성’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는 없다.

말을 줄이려는 욕구나 말을 줄여 새말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오래된 언어 사용법이고, 여러 가지 현상과 개념과 기술과 느낌이 얹히고설키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말 줄임은 불가피한 것 같다. 사실, 30년 전에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옥떨메(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우심깜뽀하(우리 심심한데 깜깜한 데 가서 뽀뽀나 하까?)와 같은 줄임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약칭, 약어, 은어 차원에서 수많은 줄임말이 사용되었다. 요즘의 세태만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의 압축 정도와 사용 빈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다. 이런 말 줄임



현상이 아직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득세하고 있지만, 언젠가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공식 영역의 언어를 좌우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 공식 영역, 공공언어 영역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올 거라고 본다. 지금도 윤핵관, 검수완박 등 정치권의 공식 언어에서 줄임말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넓게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도 줄임말 문화는 하나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 아닌가 싶다. CPTPP, IPEF, FOMC 등 도무지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국제기구의 로마자 약칭이 국제무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무런 거름 장치 없이 그냥 쓰인다. 이런 말들 앞에는 ‘줄임말’이라는 장벽과 ‘외국글자’라는 두 개의 장벽이 서 있다. 서너 개의 외국 단어로 이루어진 이름의 머리글자만 딴 이런 약칭을 앞에 놓고 그 정체를 추측하기란 첩보영화에 나오는 암호 해독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지면이나 화면의 제약, 시간의 제약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무엇이든 줄이려 한다. 이런 태도는 언론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무원이나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처음에는 온 이름을 쓰고 괄호 속에 로마자 약칭을 병기한 뒤 본문에서는 약칭을 쓰다가, 조금 지나면 처음부터 약칭만 사용한다. 특히 방송 보도가 그렇다. **이런 로마자 약칭 대신 쓸 우리말 약칭이라도 개발해야 하는 게 그나마 공식 언어 영역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로 ‘유엔’, 또는 ‘UN’이라고 사용하는 ‘국제연합’을 부를 때 일본에서는 ‘국련’이라고 줄여 부른다. 중국에서는 ‘나토, NATO’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줄여서 ‘북약’이라고 부른다. 우리 언론에서도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미 연방준비제도’를 ‘FRB, FED’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미 연준’으로 줄여 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로마자 약칭으로 부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음엔 이상하고 어설픈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미 연방준비제도’를 언급한 뒤에 ‘미 연준’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고, 그리하여 ‘미 연준’을 들으면 그것이 미국 어떤 연방 기구의 하나라는 추측이 시작되어 그다음에는 이를 일치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적어도 ‘아이피이에프(IPEF)’와 ‘인태경협구상’ 가운데 ‘인도태평양경제협력구상’이라는 온 이름으로 접근해 가는 데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줄임말 문화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진정시킬 건 진정시키고 좀 더 모호함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필요하다. 🌊

* 이 글은 한글학회 <한글새소식> 6월호에도 실렸습니다.



공문서에는 정답이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가릴 것 없이 보도자료를 살피다 보면, 첫 문단에 우리말로 쓴 뒤 괄호 속에 '이하 000' 라고 적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자 표기를 하거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고 적은 뒤로는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처럼 쓴다. 과거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좁은 지면에 넣어야 하는 언론에서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전경련'으로 바꾼 것처럼 비교적 긴 단어를 줄이는 건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방향이다. 하지만 우리말로 풀어쓴 것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외국어 표현이나 로마자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어기본법 위반이다.

그렇다면 국어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조항은 국어기본법 제14조이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과거엔 '공문서의 작성'만 다뤘었지만, 2021년 6월 15일 개정을 하며 '공문서'는 '공문서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도 포함된 것이다. 또한 '공문서 등의 평가' 항목이 신설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국어기본법을 준수하였는지 평가받게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①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②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③ 어문규범에 맞추어 ④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

인터넷 등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외국어를 접하기 쉬운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 사회이며, 우리나라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특히나 공공언어는 공용어인 우리 말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에 따른 공익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추정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바꿨을 때 연간 3,375억 원에 달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민원 서식 1,952억 원, 정책용어 753억 원, 약관·계약서류 791억 원 등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행정 용어 때문에 드는 시간 비용은 170억 원으로 분석됐다.

외국어는 사전에서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 단, 외국에서도 새로운 문물과 함께 생긴 용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또한 '언택트'처럼 외국에선 쓰이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생긴 낱말도 외국어 사전에 뜻풀이가

올라가 있지 않다. 이런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에서 제공하는 대체어로 바꾸어 쓰면 된다. 이 누리집에는 공문서, 언론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외국어 3,850여 낱말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가 소개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로는 사용 빈도가 낮고 어려운 한자어도 있다. 공문서를 살펴다 보면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은 쉬운 고유어나 같은 한자어일지라도 더 알기 쉬운 말을 찾아 바꾸는 게 좋다. ‘개소하다’ 대신 ‘열다’,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꾸어 쓰면 일반 국민이 훨씬 알아듣기 쉽다.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

우리말은 외국어에 비해 어순이 자유로운 편이며 주어도 자주 생략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 비문이 나타나기 일쑤다. 알기 쉬운 문장을 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 세 가지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문장을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한 문장에 하나의 주제만 담고, 100자(2줄) 이내로 쓰는 것이 좋다. 문장이 길어 질수록 받아들이야 할 정보가 많아지고, 주술 관계를 가리지 못할 확률이 높다. 문서를 다 쓴 뒤에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너무 긴 문장 등은 나누어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시되는 다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어학원과 MOU를 체결하여 세계 각국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국제 무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제 어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제 어학원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일상적인 언어 사용하기

너무 전문적이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어휘나 용어보다 일상적인 언어와 구어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용어를 꼭 써야 한다면 우리말로 풀어서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로마자 표기 등을 해야 한다.

협업 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간적인 효율을 극대화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협력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3)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기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단어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로 쓰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멀리 떨어뜨리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두어서 꾸밈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관 내 소모임을 꾸리기 위하여 누리집에 모집 공고를 하여 소모임 회원을 모집한 경우



기관 내 소모임을 꾸리기 위하여 누리집에 모집 공고를 이 규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하여 소모임 회원을 모집한 경우

*‘소모임 회원 모집 공고’를 ‘규약이 체결되기 전에’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

기관 내 소모임을 꾸리기 위하여 누리집에 모집 공고를 하여 소모임 회원 모집을 이 규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한 경우

*‘소모임 회원 모집’을 ‘규약이 체결되기 전에’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남

어문규범에 맞추어

공문서는 헌법 제7조에 규정한 대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주로 쓰는 글이다. 공문서는 문학 분야와 달리 글을 쓰는 기교보다 누가 읽어도 오해할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며 써야 한다. 공문서는 기관을 대표하는 문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어문규범에 따라 문장 구조와 표현을 명확히 하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앞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쓰는 것이 문법에 관한 규정이라면,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와 표기에 관한 규정이 어문규범이다.

어문규범은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준화법 등이 있다. 이중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띄어 써야만 맞춤법 규정에 맞는가 하면 붙여쓰기가 허용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가 붙는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쓴다.

규약을 깨다 ➤ 규약이 깨어지다
봉사가 즐겁다 ➤ 봉사를 즐거워하다

다만, ‘-아/어 하다’가 구에 결합하면 띄어 쓴다. 뒷말에 붙여 쓰게 되면, 구 전체에 결합한 것이라고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싶어 하다 (○) 먹고 싶어하다 (X)
내키지 않아 하다 (○) 내키지 않아하다 (X)

이외에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 단어가 합성 용언인 경우 등 붙여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문규범은 되도록 잘 지키는 게 좋지만 복잡하고 많은 규정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거나 원칙 외의 허용되는 사례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국어사전에 하나의 낱말로 올라가 있는 합성어가 아니라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름 이외의 고유 명사나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하나의 문서 안에는 합성어와 전문용어가 아닌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라도 의미 단위로 띄어 쓰는 게 좋다.

한글 맞춤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한글로 써야 한다

공문서는 한글로 적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적어줄 수 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국어기본법과 법 시행령 모두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게 제한된 조건과 방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도자료 등에서는 규정과 반대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과 같이 쓰면 한글 전용 위반이다. 그 반대로 한글로 적은 뒤 괄호 속에 외국 글자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된 ~



한글 전용 위반

외국어를 음차하여 한글로 적는다면 한글 전용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어 대부분은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있다. 언론에서 로마자만 쓴 경우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로마자를 병기할 수 있으나, 문서당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

CPTPP (X) ❌ 시피티피피(CPTPP)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O)

단, 우리말로 공문서를 적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문서의 분량 때문에 로마자를 쓸 수밖에 없다”라며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에서 뜻을 모아 ‘우리말 약칭 제안 모임’을 꾸렸다. 로마자 표기도 대부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줄임말을 써야 한다면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된 줄임말을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 🐦



2022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북돋움상 남윤숙

“ 나는 대한민국 의
안 내 원 이 다 ! ”

“버스킹요? 아니 교통수단인 버스와 왕이 섞인 것 외국어 같은데, 대체 이게 뭔 해괴한 말이라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거리공연이라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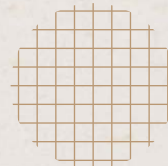
지난 휴가 때 우연히 어떤 무명 가수가 버스킹 하는 걸 구경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득달같이 나를 나무랐다. 그리고 보니 진짜 의미도 모른 채 막 써댄 것이 었다. 문득, 우리 손녀가 만일 내게 “할머니, 왜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온다면, 그땐 과연 뭐라 대답해주어야 하나 싶어 아찔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작가다. 온갖 문학 공모전마다 입상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당선 이력을 가진 이다.

그녀를 처음으로 본 것은 올 초 모 가수의 팬카페에서였다. 여기서 우연히 보게 된 그녀의 글, 대번에 글 실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 역시 그녀가 카페에 글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대부분 환호했다. 그렇다고 마치 칼럼을 쓰듯 논 문을 쓰듯 정교한 글은 아니었고, 그야말로 유머러스한 문장 일색인 데다가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경상도 사투리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윤색하지 않은 솔직한 글이라 사실 이러한 점이 더욱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딴사람인 양 정색하고 글을 썼고, 그런 글엔 결코 토씨 하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직업이 글을 쓰는 전업 작가란 건 나중에야 알았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그럼 그렇지.’ 했다.

75 평생 어찌다 연예인 팬카페에 가입하긴 했지만,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일색이었다. ‘스밍, 마셀, 네티, 쿠플, 덕애드’ 등등. 전부



외국어인 건 알겠는데 그나마도 줄여 표기해버리니 당최 정신마저 혼미할 지경이었다. 이런 마당에 컴퓨터로든 휴대전화기로든 이리저리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응원 방법까지 또 어찌 따라 하겠는가.

차라리 탈퇴를 해버릴까 하던 즈음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그녀의 글을 보게 되었고, 나는 그만 그녀가 올리는 글에 폭 빠지게 된 것이었다. 좋아해서 가입한 가수보다 오히려 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소란이 일었고 속이 시끄러웠던지 그녀도 사라졌다. 그녀의 글이 보이지 않게 되자 차츰 나뿐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이 그녀의 글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여 우린 합심한 듯 그녀의 블로그로 찾아들어 갔다. 아, 말로만 듣던 그녀의 멋진 수상 작품들과 꾸밈없고 진솔한 일상 글들, 정말 궁금했다. 이 작가님은 대체 어느 대학교 국문과를 나왔는지 또는 어떤 문학 쪽 석사학위를 받았는지.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작가님의 블로그에 들어갔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자연스럽게 작가님 글 밑에다 댓글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날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졸이다.'였다.

사실인즉, 작가님의 최종 학력은 국졸이라 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 2학년 시절 비행 청소년이 되어 퇴학을 당했기에 졸업장이라곤 단 하나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다고 했다. 물론 그 후 김정고시를 본 일도 없고, 그 어떠한 학업도 이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린 모두 아연실색했다. '국졸이라며? 중학교도 못 나왔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국어에 능할 수 있지? 어찌 이리 훌륭한 문학작품을 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떻게 내로라 하는 작가가 될 수 있었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해도, 또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해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영어, 한문까지 오직 독학으로 능하게 된 것에는 기가 막혀 혀를 내둘렀다.

나는 과거 34년간이나 남자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하지만 한글맞춤법은 늘 헛갈리고, 아니 아예 모르는 단어들로 넘친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점점 한심해졌다.

작가님은 블로그에다 매일 아침 '틀린 말 바른말'을 올려주고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도 포함된다. 며칠 전에는 흔히들 '플랭카드, 플랑카드'라고 하는데, 바른 외래어 표기로는 플래카드가 맞다고 했다. 더불어 이왕이면 플래카드 대신 현수막이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도 했다. 그리고 어제는 '숍(shop)'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길거리 간판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였다.



-헤어, 네일, 애견샵, 할인샵... 이 모두 잘못된 표기입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숍’입니다. 가능한 우리말로 쓰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 외래어를 쓸 경우엔 바르게 표기해야겠지요.-

그러자 댓글의 90%가 ‘숍’이 올바른 표기란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이어 각자 외국어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일화들을 댓글로 달기 시작했다.

“저는 컨트롤타워를 컨디션타워라고 했던 적 있어요.”

“저는 라미네이트 하러 치과에 가선 마리네이드(밀간) 해 달라고 했었어요.”

“말도 마요. 전 스케일이라 한다는 게 스타일이라 했고, 스트롱을 판타롱이라 했습니다.”

“아, 전 말이죠. 리미티드 에디션을 레이어드 에디션이라 말했지 뭐예요.”

다들 웃음보가 터졌는데 마지막 댓글이 확실하게 대미를 장식했다.

“저보다는 다들 낫네요. 전 가방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시그니처 대신 시니어 처, 시니어처 떠들어댔어요. 저를 보는 점원의 표정이....”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불러온 폐해를 똑똑히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이에 작가님은 앞으로 블로그에서만이라도 가능한 외국어를 금지하자고 부탁했다.

여전히 팬카페에선 응원 용어로 ‘스밍, 마셀, 네티, 쿠플, 덕애드’를 외쳐대며 난리다.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 몇은 어찌면, 눈과 귀가 어지럽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까지 찢어질 거 같아 탈퇴해버릴 지도 모른다.

작가님이 운영하는 이 블로그가 팬카페보다 훨씬 좋다. 마치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막 입학해 ‘가나다라’부터 배우는 학생 같고, 바른 우리말과 잘못 쓰는 외국어를 깨우칠 때마다 또 희한하게 가슴에선 애국심마저 생긴다.

현재 나는, 지난 역사 교사 이력을 살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설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중이다. 처음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도슨트(docent)’라고 했다. 입에는 잘 붙지 않았지만 이 말이 왠지 고급스럽고 멋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슨트’란 말을 나 스스로 쓰지 않는다. 작가님 말씀이 백번 맞다. 역사 교사였던 사람이,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안내원이란 말을 멀쩡히 두고 도슨트라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안내원 남윤숙이라고 합니다.”

나도 그처럼 우리말을 사랑하는 멋진 안내원이 될 거라 새롭게 다짐해 본다. 🌊



2022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복돋움상 김영주

“	그	건		그	냥				
	‘	코	로	나		우	울	증	’
	이	에	요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이하 코로나)으로 한창 세상이 어지럽던 어느 날, 엄마의 전화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할아버지였다. 밥은 먹었는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안부를 물으시더니 문득 잠시 말을 멈춘 후에 말씀하셨다. “그… 코로나 블루가 뭐고?” 단어 하나를 물어 보기 위해 전화했다기엔 조금 민망하셨던 걸까. 그저 평소 같던 안부 인사 끝에 잠깐의 망설임과 함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질문이 나는 충격적이었다.

할아버지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충격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 내 사고방식으로부터 온 충격이었다. 질문을 듣자마자 잠시 ‘할아버지가 그렇게 쉬운 단어도 모르시나?’ 하는 의아함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는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거침없이 가르쳐 주시고 해제 없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줄줄 읽으시는 분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어도 역사드라마의 고종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분이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에게 ‘박학다식한 지혜로운 어른’이었다. 그토록 똑똑한 어른이 뉴스를 즐겨보지 않는 나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단어를 모르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적어도 ‘코로나 블루’가 영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다. 코로나 블루는 영어였다. ‘코로나가 가져온 삶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사람들이 앓게 되는 일종의 우울감’. 20대 후반인 나는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22

23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쉬운 영어였지만, 할아버지께는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외국어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비단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었다. ‘온택트’, ‘스펜데믹’부터 시작해 ‘덤벨 경제’, ‘메가시티’, ‘다크코인’.... 하루하루 새로운 외국어들이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쏟아졌다. 당장 스마트폰을 가져와 검색해볼 수 있는 나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모르는 말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도 없었을 것이다. 뉴스 자막이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를 끼시는 할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돋보기를 끼어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외국어의 안개 속에서 얼마나 헤매셨을까?

할아버지는 그날 약간의 뿌듯함과 함께 고마움이 섞인 인사로 전화를 끊으셨다. 나에게서는 너무나 쉬웠던 단어가 할아버지께는 배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 전화 끝에 나는 수많은 언론에서 ‘코로나 우울증’이 아닌 ‘코로나 블루’라는 외국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저 하나 더 줄어드는 글자 수 때문일까? 우울증이라는 말을 개념화해서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렇다면 ‘코로나 파랑’이라고 하면 되었을걸, 왜 굳이 영어였을까?

문득 내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겪은 아주 인상 깊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버건디(와인)색이 잘 어울려 “팔색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던 어느 손님, ‘트렌디한 옷’이라는 말 대신 ‘최신 유행’이라는 말을 썼더니 90년대 사람이라며 비아냥거리던 동료들, ‘몸에 붙는 형태’라는 말 대신 ‘핏(fit)한 디자인’이라는 말을 권장하던 직원 교육,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어는 멋있고 우리말은 촌스럽다.’는 문화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사실 문화사대주의가 나쁘다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진부하고도 상투적인 관습이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말에 녹아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화사대주의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치와 한복을 중국 문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의 말을 우리의 의지로 지워가는 현실은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사실만 봐도 교묘하게 녹아든 관습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외국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의 ‘변화’다. 수많은 존재가 함께하는 사회에서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렇기에 원래 있던 것이 새로운 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현실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새로운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충돌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대체하는 것, 외국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로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이 바로 그 ‘노력’일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어떤 날은 수많은 망설임 끝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시고, 또 어느 순간은 뉴스를 못 알아듣는 자신을 탓하며 우울감에 빠지셨을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결국 할아버지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라는 또 다른 '블루'를 안겨줄지도 모른다.

그날 할아버지의 전화는 내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줬다. 대체어를 찾아 우리말을 써보려는 노력은 '우리의 문화를 지킨다.'는 거시적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하는 세상, 빠르게 밀려 들어오는 모든 새로움으로부터 나의 할아버지를, 나의 할머니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코로나 블루를 모르셨던 할아버지의 모습 위로 터치형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으실 수 있기까지 며칠이 걸렸던 할머니가 보인다. 뒤이어 키오스크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는 엄마와 큐알코드를 켜지 못해 뒷사람을 기다리게 했던 아빠가 떠오른다. 나는 그 속에서 어렴풋이 내 미래를 본다. 내 수년 뒤의 어느 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점철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짝 힘주어 말한다. "그건 그냥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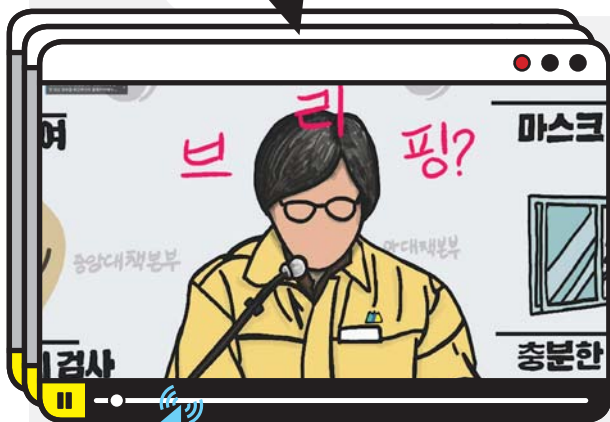
2022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보람상 @염소



코로나 뉴스 속에서 쏟아지는 외국어...
무슨 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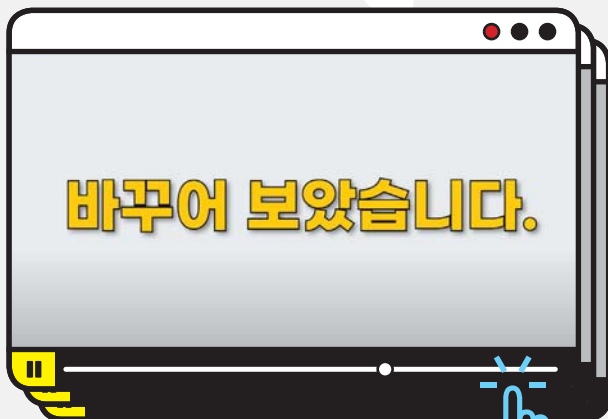
코로나19 용어는 온통 외국어 천지라니!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불편한 외국어 용어,
꼭 써야하나요?
외국어와 거리두기, 나부터 실천해요!



통일집단 격리
감염병 대유행
관리체제



바꾸어 보았습니다.



통합 진료기관
직접신고
코로나 이후



바꿔주세요

칭찬합니다

요청과 답변

공모전 당선작

같이해요

복돈움상 @매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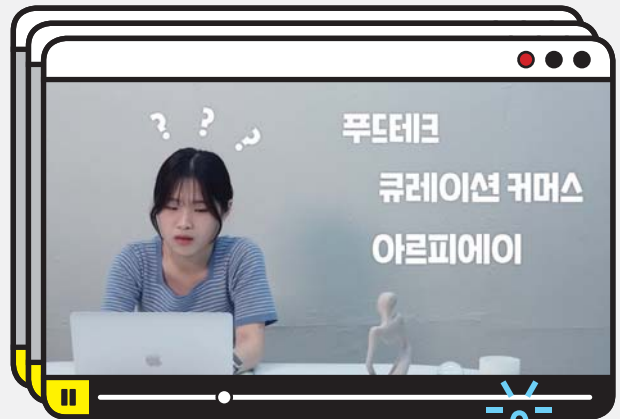


다른 세대, 같은 고민

인터넷에도, 신문에도 어려운 외국어 전성시대!
우리말 안경을 쓰니 이렇게 쉬워진다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니 다른 세대, 같은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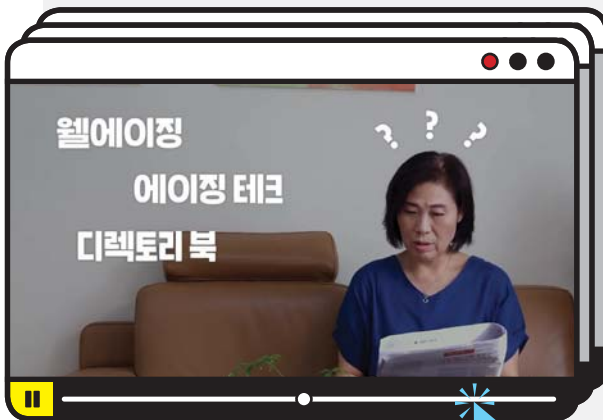


첨단 식품 기술
소비자 맞춤 상거래
업무 처리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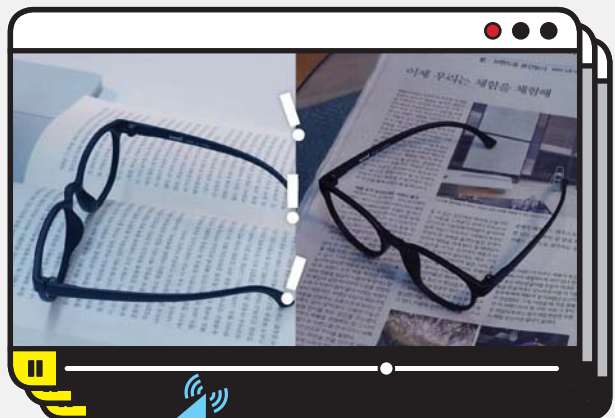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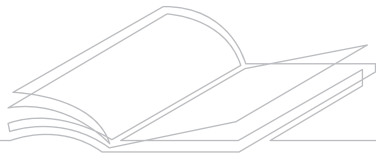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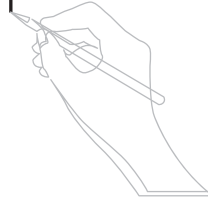
건강 노년 맞이
고령 맞춤 기술
안내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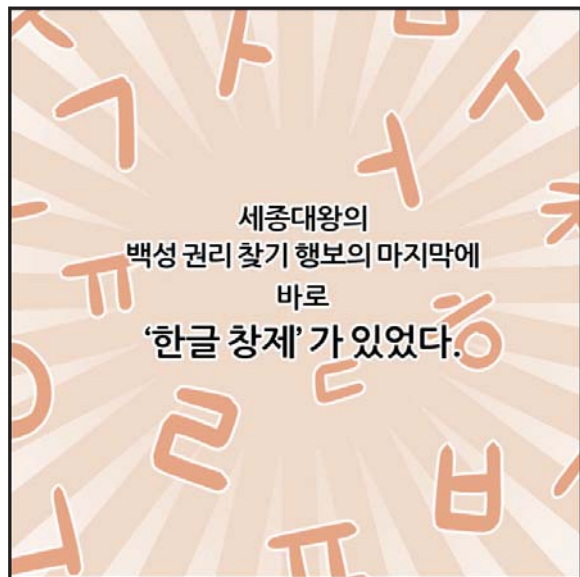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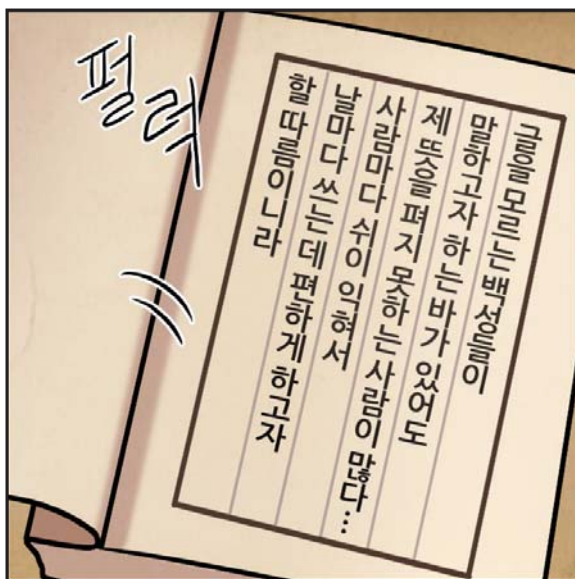
최슬 그림

세종대왕과 쉬운 우리말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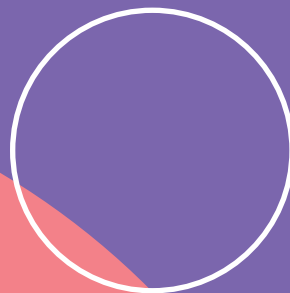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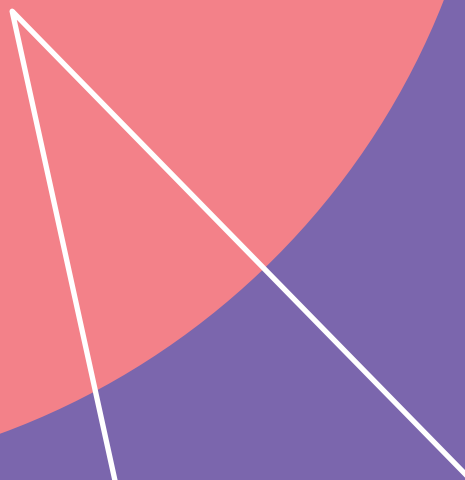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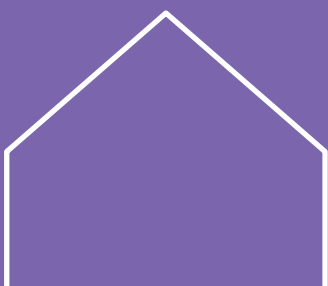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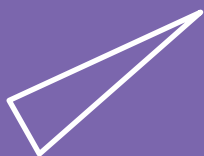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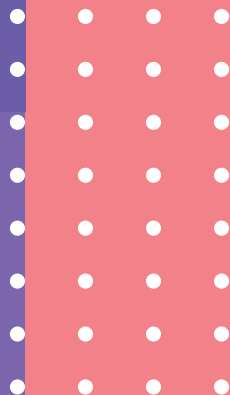






내 집 마련, 우리말 마련

유일환 (한글문화연대 연구원)



2022년 8월, 평화로운 사무실에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역번호는 '055'. 여느 때처럼 공공언어 우리말 사용 요청에 대한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엘에이치 00부 차장 000입니다.”

엘에이치...? 대부분 시청, 군청, 도청에서 전화를 받다가 생소한 이름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온 연락이라는 깨달았다. 공기업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건지 감이 도통 잡히지 않았다. 내용인즉슨 공공주택에 사용되는 외래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한글문화연대를 알게 되어 문의차 연락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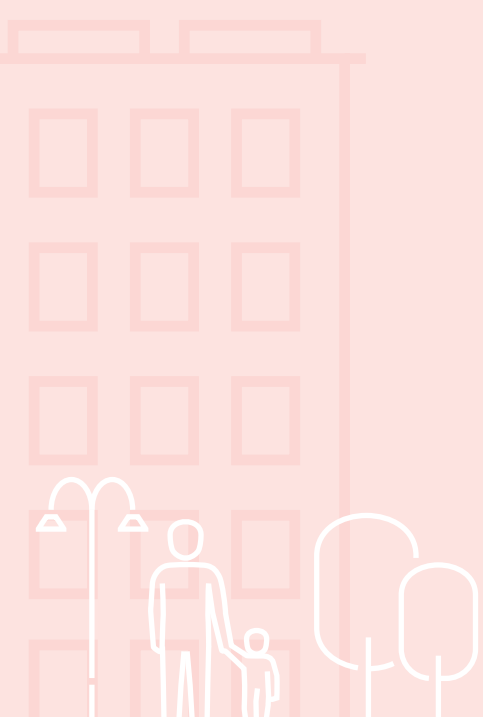
사업 설명 중 ‘외래어’는 우리말로 고칠 수가 없고, ‘외래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것 역시 말이 맞지 않지만 맥락상 어떤 뜻인지 이해는 됐다. 통화가 끝난 뒤, 몇 번의 논의와 많은 서류가 오가며 한글문화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조경도면 등을 제공했고, 한글문화연대는 공공주택 홍보물을 조사 후 외국어와 로마자 표기 용어 등을 수집해 정리했다. 주택이나 단지의 특색을 나타내는 합성어로 된 작명성 용어를 제외하고 306개의 단어를 추려냈다. 과업 기간 중엔 매일같이 도면과 공공주택 입주 홍보물을 살피며 외국어를 추려냈는데, 매번 새로운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기업마다 최대한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유독 외국어를 많이 쓴다”라며 과업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외국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언급하기도 했다.

한글날쯤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회의를 거쳐 범위를 더 확대해 홍보 성격이 강한 용어도 포함해 다시 418개를 수집했고, 최종 논의를 거쳐 258개의 단어를 순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업 중 있던 일화로, 회의 도중 ‘젠다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에 따르면 ‘차선반’으로 순화한 이력이 있지만 너무 예전(1997년)에 순화한 용어이고, 지금은 현장에서 다르게 쓰이고 있어서 논의를 거쳐 ‘좁은 선반’으로 새롭게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젠다이’는 대부분 욕실의 세면대 뒤편에 물건을 놔두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좁은 선반’으로 순화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은 평소 우리가 쓰던 말이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용도 그대로 우리말로 풀어서 쓴다면 어렵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현장에서 직접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말로 바꾸고자 노력하니 매우 수월하게 진행됐다.

순화 용어는 (주택의) ‘전용공간’, ‘공용공간’, ‘부대복리시설’, ‘일반’, ‘조경공간’ 등 총 5개로 분류했으며, 정식 말다듬기 회의는 8번이나 진행했다. 순화 작업을 하면서도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이 순화어를 직접 제안하는 행사를 기획해 진행하기도 했다. 977명이 참여했으며, 발코니, 알파룸, 팬트리, 키즈 스테이션, 게스트 하우스라는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로 다양하고 멋진 말들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각각 덧마루, 더누리방, 씬지방, 새싹정류장, 공동 사랑채가 1등상을 받았다. 물론 이렇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말로 활용하게 된다.



발코니

알파룸

팬트리

키즈 스테이션

게스트 하우스

뎃마루

더누리방

쌈지방

새싹 정류장

공동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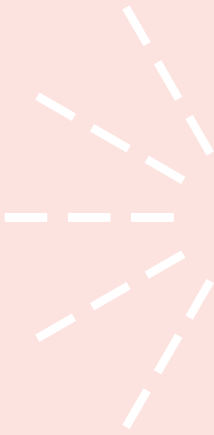
'우리 집 이곳저곳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공모전 대상 용어와 수상작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 이름 중 ‘파크’나 ‘캐슬’같은 짧은 영문 이름은 익숙해지다 못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이다. 심지어 영어뿐만 아니라 스웨덴어인 ‘포레나’, 불어인 ‘에트르’라는 외국어도 사용한다. 건설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외국어로 만드는 것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 때문인지 이번 과업 역시 아파트 이름 등을 바꾸기보다 국민의 생활 환경에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공공주택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고자 했다.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집’, 공공성은 충분하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외국어는 우리말로 쉽게 바꿔쓰며 정보의 차별을 겪게 하는 마케팅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 내 집에 있는 공간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리시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편하게 접하는 정책이 다양해지기 바란다. 🌈

다듬은 말 목록(꼭 바꾸어 쓸 주택 용어 60개)

대상어	다듬은 말
1 레인지후드 (range hood)	• 주방 배기장치
2 발코니 (balcony)	• 뎃마루
3 스타일러 장 (에어드레서 장) (styler 熨)	• 의류관리기 장
4 스프링클러 (sprinkler)	• 자동 물뿌리개
5 알파룸 (alpha room)	• 더누리방
6 월패드 (wall pad)	• 제어판 • 주택 제어판
7 인덕션 (induction range)	• 자기장 조리판
8 쿡탑 (cooktop)	• 불박이 조리대
9 테라스 (terrace)	• 뜰마루
10 파우더룸 (powder room)	• 화장방
11 팬트리 (pantry)	• 쌈지방 • 찬방
12 폴딩도어 (folding door)	• 접이문
13 환룸 (fan room)	• 환풍실
14 EPS (Electrical Pipe Shaft)	• 전기선 통로 • 전기배관실
15 MDF (Main Distribution Frame)	• 케이블 분배함
16 TPS (Telecommunication Pipe Shafe)	• 통신선 통로 • 통신 배관실
17 맘스카페 (mom's café)	• 아기랑 카페 • 주민카페 • 육아카페
18 캐노피	• 덮지붕
19 포스트박스 (postbox)	• 우편함
20 필로티/필로티 형식 (piloti (s))	• 기둥 방식 • 지주 (支柱) 방식 • 들기둥
21 GX room (GroupeXercise room)	• 단체 운동실




	대상어	다듬은 말
22	라운지 (lounge)	• 휴게실 • 쉼터
23	스터디룸 (study room)	• 공부방
24	스토리지 (storage)	• 창고 • 공간
25	시니어센터 (senior center)	• 어르신 집 • 경로당 • 어르신 누림터
26	카스토퍼 (car stopper)	• 주차턱
27	커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	• 어울림공간 • 누리온공간 • 공동체누림터 • 어울림터
28	컬처센터 (culture center)	• 문화누림터 • 문화공간
29	쿠킹룸 (cooking room)	• 조리 실습실 • 요리 강습실
30	키즈스테이션 (kids station)	• 새싹정류장
31	키즈카페 (kids café)	• 어린이 카페 • 놀이돌봄방
32	피트니스 센터 (fitness center)	• 체력단련장 • 체력단련실 • 운동마루
33	헬스장 (health 場)	• 튼튼마루
34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설계
35	게이트 (gate)	• 문 • 출입구
36	네트워크 (network)	• 연결망
37	드롭 (오프)존 (drop- (off) zone)	• 승강장
38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39	볼라드 (bollard)	• 길말뚝
40	셰어 하우스 (share house)	• 공유 주택
41	소셜믹스 (social mix)	• 어울 단지 (조성) • 사회적 혼합
42	아케이드 (arcade)	• 연립 상가 • 아케이드 (지붕있는 열린보도를 가리키는 경우)
43	옵션 (option)	• 선택 • 선택사항 • 추가사항
44	인포메이션 (information)	• 정보 • 안내
45	클린넷 (cleanet)	• 쓰레기 자동 처리 시설
46	동약 가든 (棟 앞 garden)	• 도순정원 • 두런두런정원 • 담소정원 • 1분 정원 • 앞뜰 • 소담뜰
47	레인가든 (rain garden)	• 빗물정원
48	루프탑가든 (rooftop garden)	• 하늘정원 • 옥상정원
49	미러폰드 (mirror pond)	• 거울연못 • 바닥 분수
50	미팅 포인트 (meeting point)	• 이야기 쉼터 • 담소 마당 • 만남자리 • 만남의 장소
51	보타닉가든 (botanic garden)	• 오색꽃밭 • 한아름정원 • 생태정원 • 풀꽃뜨락
52	워터 그라운드 (water ground)	• 축축놀이터 • 물빛샘 • 물첨병 놀이터 • 물놀이터 • 물방울 놀이터
53	워터 플라자 (water plaza)	• 한샘가온 마당 • 청량마당 • 꽃가람 마당 • 푸르네 마당 • 물빛마당 • 물도랑 마당 • 물 마당
54	웰컴 플라자 (welcome plaza)	• 맞이 마당 • 어귀 마당 • 어귀숲마당 • 나들 마당 • 외곽 마당 • 마중 마당
55	커뮤니티 플라자 (community plaza)	• 어울림마당 • 같이마당 • 누리온마당
56	키즈스퀘어 (kids square)	• 꿈누리마당 • 아이꿈터 • 놀이뜰 마당 • 어린이마당
57	티 가든 (tea garden)	• 차뜨락 • 차향기 뜰 • 차다락 뜰 • 휴게 정원
58	패밀리라운지 (family lounge)	• 가족 휴게실
59	퍼걸러 (pergola)	• 그늘쉼터 • 정자
60	포켓정원 (pocket garden)	• 쌈지정원




쉬우리와 함께 알아보는 쉬운 우리말!



쉬운 우리말 누리소통망

 @plain_korean >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urimal2020 > 페이스북

 blog.naver.com/urimal2020 > 블로그



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알라고 있는
귀염둥이 '쉬우리'입니다



YouTube

앱 열기



한글문화연대X농촌진흥청

계분벨트, 집란벨트, 생력(화), 파각란

계...분? 집...란?
달걀 하나 먹으려다가 어려운 말을
이렇게나 많이 듣다니!
닭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말,
쉽게 우리말로 바꿀 수 없을까요?



YouTube

앱 열기



한글문화연대X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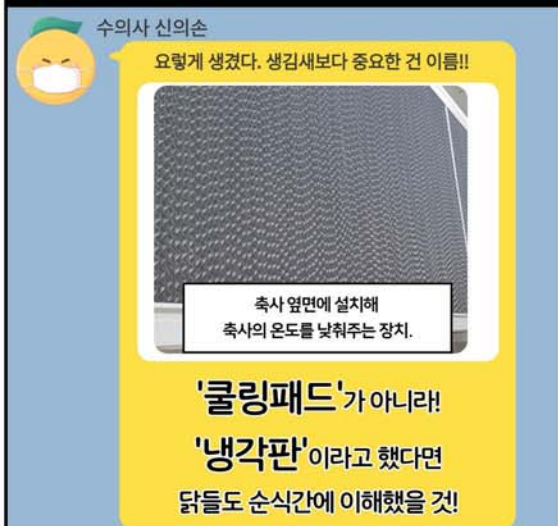
라이브커머스, 헬스케어식품, 씨앗키트

이제 농작물도 집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구매한다는 건지..
이제 돈을 쓰려고 해도 외국어를
알아야 하는거야?
어려운 농업 용어, 우리말로 바꾼 내용
살펴보자!



YouTube

앱 열기



한글문화연대X농촌진흥청

쿨링패드, 바이오커튼, 바이오월

꼬끼오!!!!!!
닭집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울부짖는 닭!
그래서 '쿨링패드', '바이오 커튼'을
설치해준다고요? 닭뿐만 아니라
사람도 못 알아들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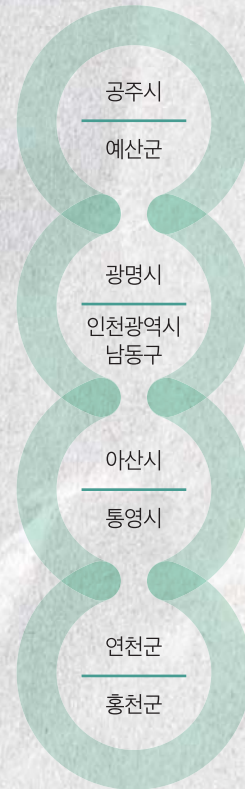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 사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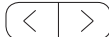
한글문화연대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의 공개 에이피아이로 제공하고 있는 ‘쉬운 우리말 사전’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다. 2023년 새로 발표된 새말 등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새말에 대한 정보와 예문 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공문서 작성 등 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사용해야 할 때, 본문 내용을 붙여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주는 ‘외국어 검사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시·군·구 누리집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처음 설치한 뒤로는 갱신할 필요 없이 항상 최신 사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기초지자체 8곳에서 설치했다. 🐦



‘쉬운 우리말 사전’을 설치한 곳들 (8곳)



쉬운 우리말 사전



공주시 누리집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참여소통 | 시청소식 | 공주소개 | 분야별정보

검색

강한 공주 재능있는 시민

☰ 분야별정보 · 문화 · 쉬운 우리말 사전

분야별정보

쉬운 우리말 사전

복지

보건

일자리

교육

문화

• 공주시 중남연장국악단

• 중남고향악단

• 공주시립합창단

• 체육시설

• 공주하이커야드

쉬운 우리말 사전

외국어 용어의 쉬운 우리말 표현 사전

우리말을 검색해 보세요.



전체 : 3,636건

한글

전체 가 나 다 라

다 바 사 오 자

차 카 토포 우

가드닝*

가드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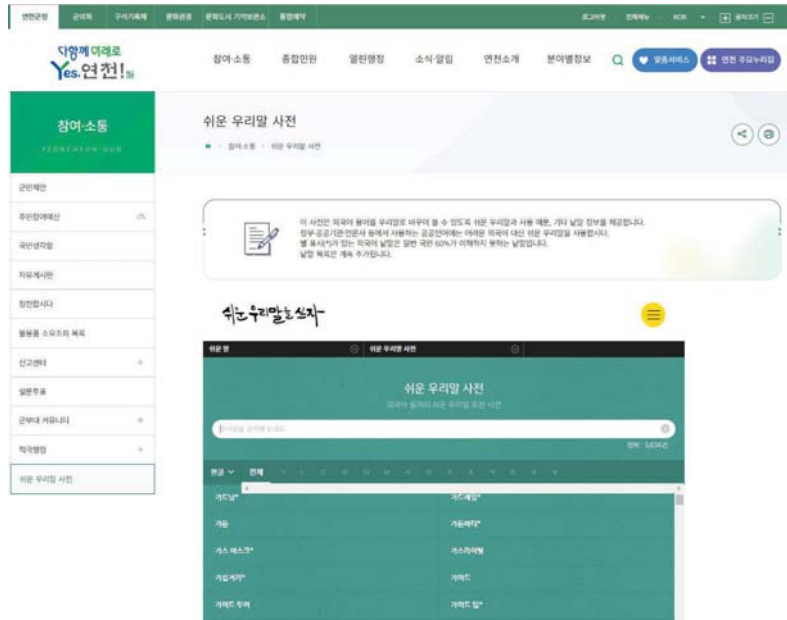
가든

가든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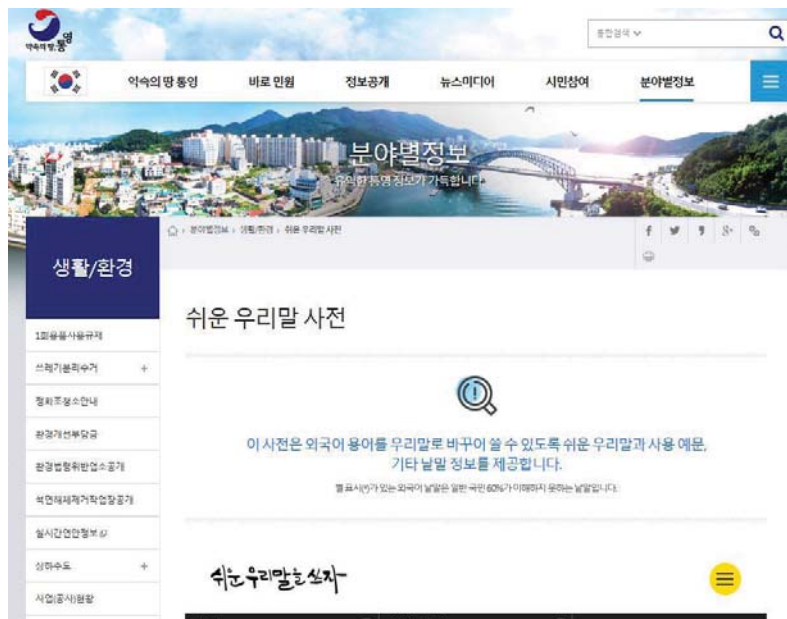
가든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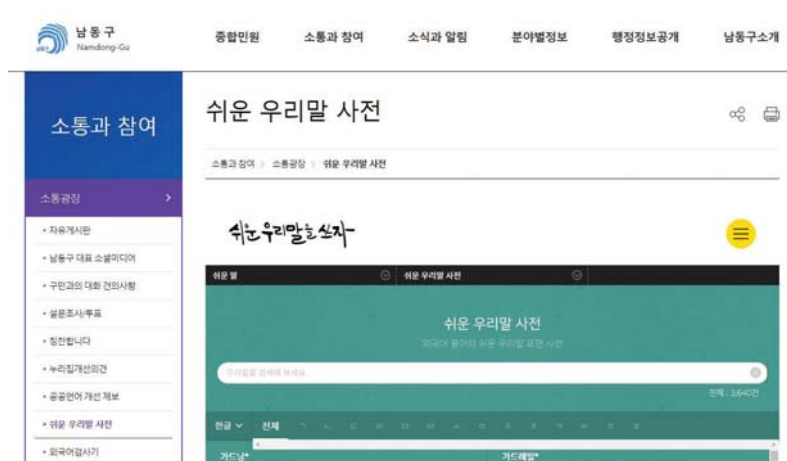
연천군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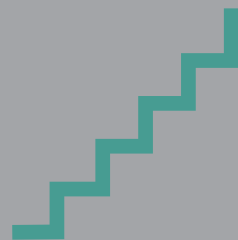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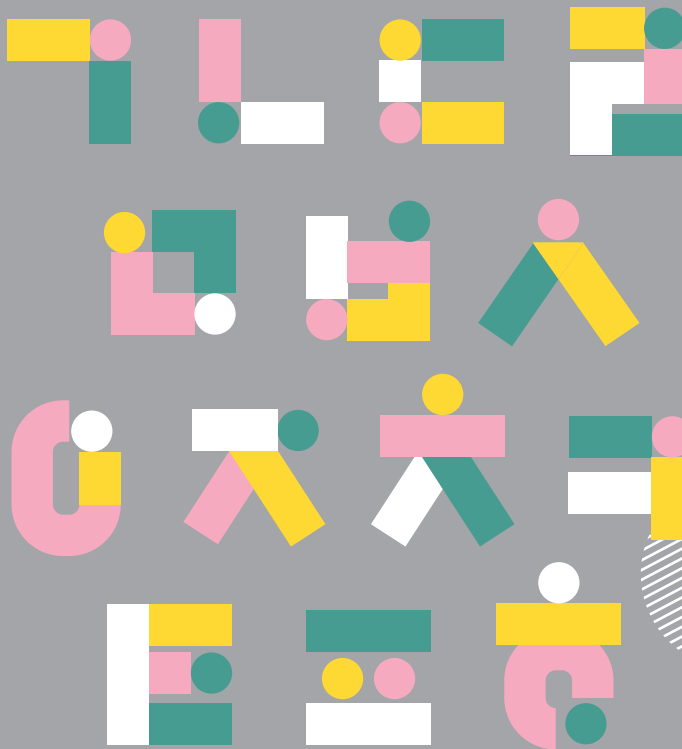


통영시 누리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누리집





기관 누리집에 ‘쉬운 우리말 사전’ 무료로 설치하세요.

바뀌 써야 할 외국어 단어와 대신 쓸 수 있는 쉬운 우리말 제공
공개 에이피아이를 사용하거나 누리집 내 창으로 설치하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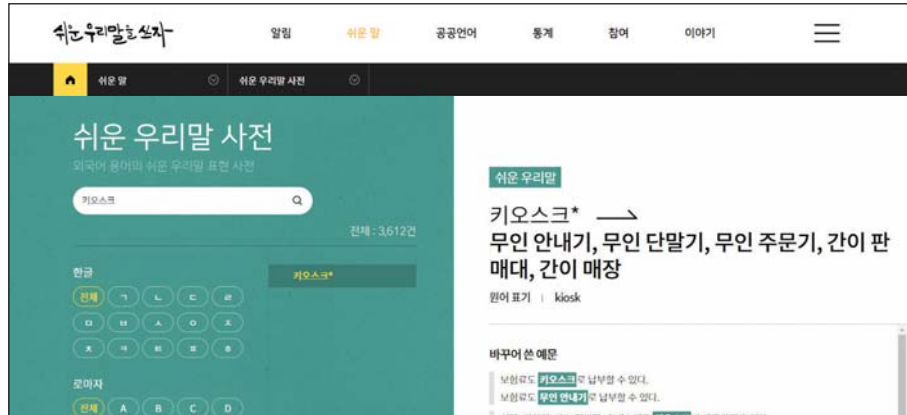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는 ‘쉬운 우리말 검색’
공개 에이피아이를 제공한다.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여러 외국어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쉬운 우리말 사전’과 ‘외국어 검사기’,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을 기관 누리집에 그대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개 에이피아이를 활용하거나 쉬운 우리말 도구를 기관 누리집에서 활용
하고 싶다면, 한글문화연대(urimal@urimal.org)로 문의하면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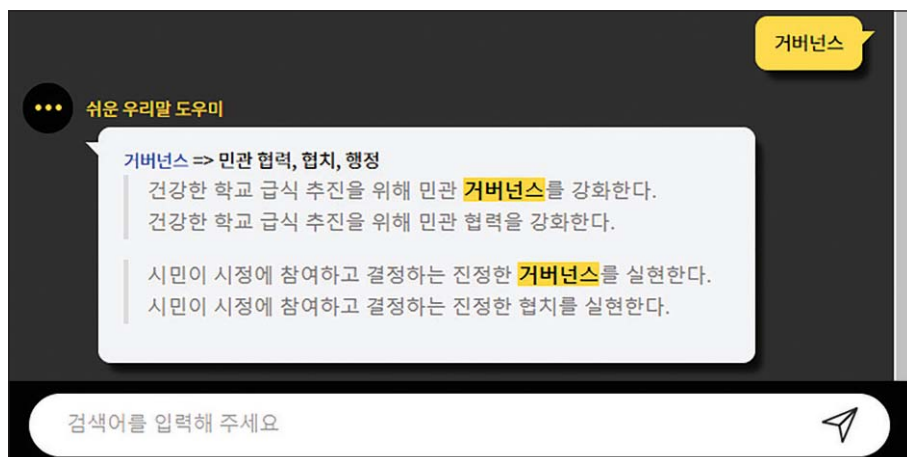
쉬운 우리말 사전으로 바꿔 써야 할 외국어와 우리말 대체어를 찾을 수 있다.



외국어 검사기로 문장에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았는지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쉬운 우리말 도우미(채팅 로봇)로 우리말 대체어와 예문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신조어를 대체할 우리 새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외래 용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달마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제공하는 일이다. 새말모임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어 신조어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검토하고 선정하여 새로 다듬은 말을 발표한다. 이 말은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론조사도 거친다.

'캔슬 컬처'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등돌림 문화'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또한, 이미 굳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한 '오마카세'같은 단어도 '주방 특선' 등으로 다듬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힘쓰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의 '공공언어 개선>다듬은 말'이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plainkorean.kr)의 '쉬운말>새말' 화면에서 발표된 우리 새말을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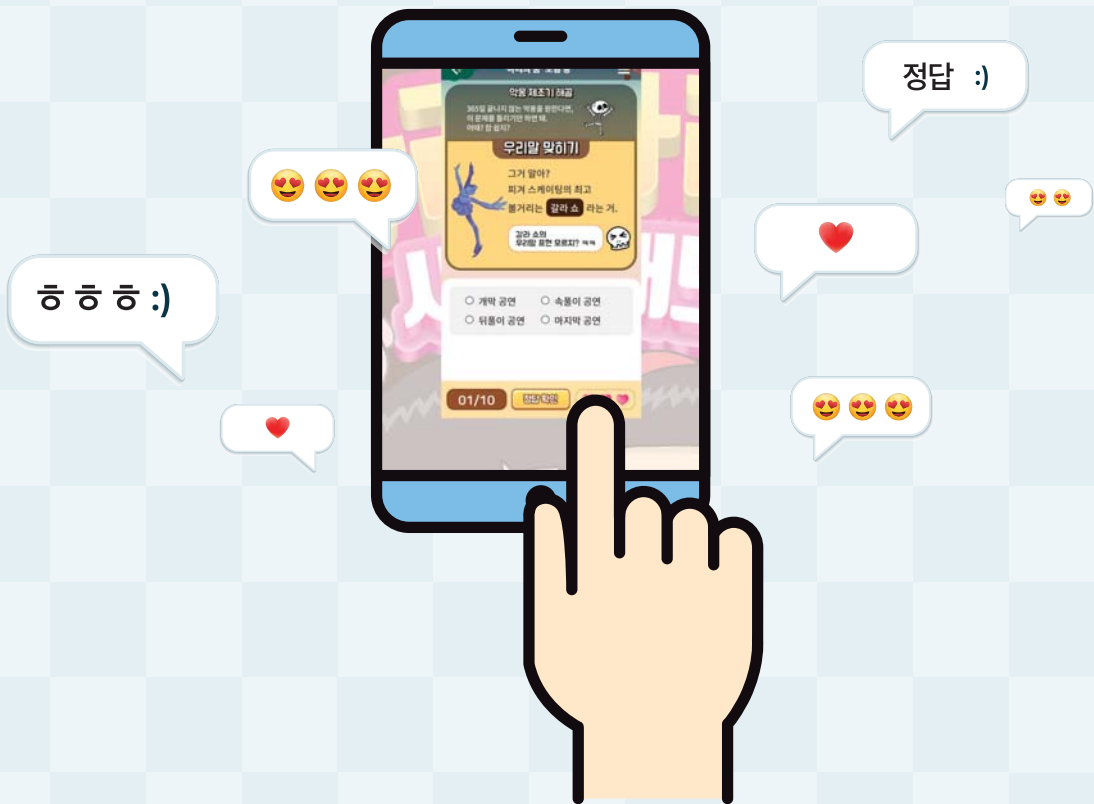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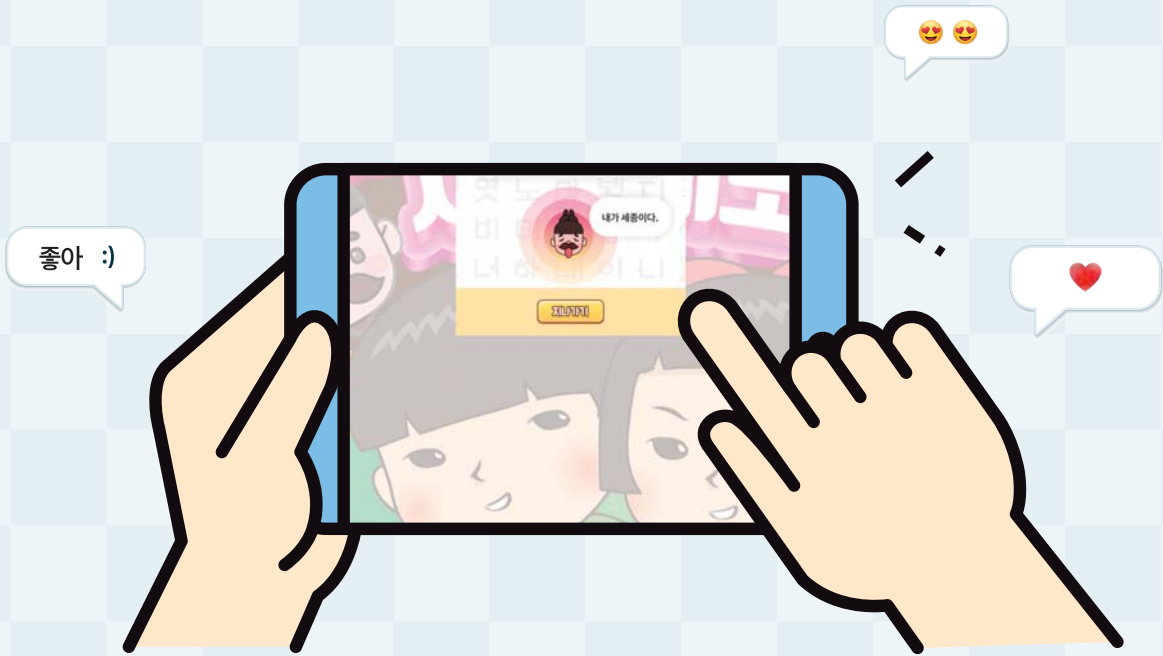
※ '새말모임'이란 어려운 외국어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다듬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어, 언론, 문학, 정보통신, 환경 등 여러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1 뱅크 런(bank run)	인출 폭주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2 그린 오션(green ocean)	친환경 시장	친환경이 가진 가치를 경쟁 요소로 내세워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3 로크인 효과, 록인 효과(lock in effect)	자물쇠 효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
4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 효과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
5 머니 무브(money move)	자금 이동	낮은 금리 등의 이유로 자산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 자산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채권 등으로 이동하는 현상.
6 캔슬 컬처(cancel culture)	등돌림 문화	유명인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인사가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follow)를 취소하고 거부하는 현상.
7 본드 런(bond run)	채권 매도 사태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파는 현상.
8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주류 반입 무료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개인이 가지고 온 주류를 개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잔 따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르는 말.
9 올드(YOLD ← young old)	청노년	주로 노령기에 접어든 베이비 붐 세대로 이루어진 65세부터 75세 사이의 노인층을 이르는 말.
10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11 뱅크데미크(bankdemic ← bank pandemic)	은행 불신 확산	은행에 대한 공포가 감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진다는 뜻.
12 웰다잉(well-dying)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13 무라벨(label)	무상표	상품 정보나 상표 따위가 표시된 라벨이 없음.
14 어닝 쇼크(earning shock)	실적 충격	기업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경우 시장에서 받게 되는 충격. 또는 이로 말미암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15 페어링(pairing)	맛조합	음식과 술, 커피 등 어울리는 짝을 맞추는 것.
16 페이 커트(paycut)	감액 계약	선수가 스스로 자신의 시장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것.
17 콜 포비아(call phobia)	통화 기피증	전화로 음성 통화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18 메타팜(metafarm ← metaverse + smartfarm)	가상 농장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작황을 예측하는 등 다양한 농업 방식을 모의 실험하여 농사에 적용하는 것.
19 오마카세(omaka[御任]se)	주방 특선	주방장이 만드는 특선 요리. 대부분 주방장이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코스로 손님에게 낸다.
20 마이크로 러닝 1(micro learning)	짤막 학습	짧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빈번하게 접속하여 학습하는 형태.
21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품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22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 경제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23 마이크로 러닝 2(micro learning)	단기 학습	적은 단위로 응축된 교육 과정.
24 이지 머니(easy money)	저리 자금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원활하여 자금 조달이 쉬운 상태를 이르는 말.
25 메가 딜(mega deal)	초대형 거래	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규모가 매우 큰 거래.
26 세이브케이션(savecation)	알뜰 휴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경향.



아리의 꿈에서 세종대왕님이 나타났어요!
혼란스러운 나라말을 가다듬으라는 어명을 받고, 출발하는 아리.
과연 외국어 투성인 지금, 아리는 성공적으로 모험을 마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2023년에 꼭 바뀌 써야 할 말 50개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 지능	유초중고에 AI → 인공 지능 과목을 신설해 2025년부터 본격화한다.
2	AI	Avian Influenza	조류 인플루엔자	정부가 겨울 철새 이동을 앞두고 AI →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대비에 나섰다.
3	AR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AR → 증강 현실 평화의 소녀상이 개발됐다.
4	ASF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으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영향이 없다.
5	BRT	Bus Rapid Transit	간선 급행 버스(체계)	세종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 → 간선 급행 버스 도로가 조성돼 굴절버스가 다닌다.
6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사회 가치 경영, 환경·사회·투명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 사회 가치 경영 이 부각되고 있다.
7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 자유 무역 협정 을 체결했다.
8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약 업계에서 의약품 GMP →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9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달부터 햄·베이컨에도 HACCP → 식품안전관리 체계 가 적용된다.
10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 통신 기술	청년들의 열정과 첨단 ICT → 정보 통신 기술 로 농촌이 바뀌어 간다.
11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돌봄과 IoT →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12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IP → 지적 재산 분쟁 대응을 돕는다.
13	IR	Investor Relations	기업 투자 설명회	신산업 증가에 따라 IR → 기업 투자 설명회 전문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IT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 기술	르네상스 걸작과 IT → 정보 기술 의 만남, ‘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전’이 열린다.
15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	세계녹색성장기구는 기획재정부와 MOU → 업무 협약 을 맺었다.
16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디지털 증서	풍속화 30점을 하나씩 NFT → 대체 불가 토큰 으로 발행하여 판매한다.
17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의료 취약국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의 ODA → 공적 개발 원조 도 계속 확대한다.
18	OTT	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19	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및 PM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20	R&D	Resea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감염병특별위원회가 국가 감염병 R&D → 연구 개발 추진 체계를 고도화한다.
21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 처리 자동화	통지서 발송 업무에 RPA → 업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22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사회 관계망	SNS → 사회 관계망 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23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SOC → 사회 기반 시설의 핵심인 신공항 건설로 경제를 살린다.

	대상어	원어	다듬은 말	예문
24	TF	Task Force	전담반, 전담 조직	아동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TF → 전담반 을 구성해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25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교통	인천시가 UAM → 도심 항공 교통 특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갈 전망이다.
26	VR	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게임하듯 VR → 가상 현실 로 실습하고 화상 수업한다
2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시대, WHO → 세계보건기구 가 제안한 새로운 지침을 알아본다.
28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호주가 중국의 관세 폭탄에 강력 반발해 WTO →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시사했다.
29	XR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	공공 민간 분야의 XR → 확장 현실 , 사물 인터넷 등 대형 사업에 투자를 지원한다.
30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협력, 협치	거버넌스 → 민관 협력 을 통한 마을 만들기와 발전 방안
31	디지털트윈	Digital Twin	디지털 복제, 디지털 복제물	디지털트윈 → 디지털 복제 로 가상 공간에 우리 국토를 구현해 모의실험을 할 수 있다.
32	로컬	Local	지역, 현지, 지방	로컬 → 지역 에 밀착한 문화 정책을 기대한다.
33	리빙 랩	Living lab	생활 실험실, 살아 있는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	주민들이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리빙랩 → 생활 실험실 이 문을 열었다.
34	마스터플랜	Master plan	종합 계획,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신도시 건설엔 무엇보다 마스터플랜 → 기본 계획 이 중요하다.
35	매칭	Matching	맞춤, 연결, 연계, 대응	언급 인식부터 간병인 매칭 → 연결 까지
36	모멘텀	Momentum	① 동력, 추동력 ② 전환 국면	양국이 대화의 모멘텀 → 동력 을 유지하고, 지속하기로 한 것은 희망적이다.
37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수단, 탈 것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 이동 수단 서비스가 일상화된다.
38	아카이브	Archive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	항만 개발과 시설 현대화 과정 등 해양 역사를 아카이브 → 기록 보관소 로 구축한다.
39	엑셀러레이터	Accelerator	새싹 기업 육성 기관,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창업 기획자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터 → 창업 초기 기업 육성 기관 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40	엑셀러레이팅	Accelerating	육성, 창업 기획	관광 산업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 창업 기획 , 금융 지원, 성장 지원 등 단계적 지원을 한다.
41	어젠다	Agenda	의제, 가치관	탄소 중립은 이제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 → 의제 가 되었다.
42	워킹 그룹	Working group	실무단, 실무 협의단	코로나19 금융 상황 점검 워킹 그룹 → 실무단 을 만들었다.
43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반, 기반 시설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인프라 → 기반 을 확충하고 지원도 강화한다.
44	컨소시엄	Consortium	협력체, 연합체, 협력 모임	산·학·연 215개 기관이 컨소시엄 → 협력체 를 구성해 국가 인공 지능 역량을 높인다.
45	키오스크	Kiosk	무인 안내기, 무인 단말기, 무인 주문기, 간이 판매대, 간이 매장	식당, 주차역, 버스 정류장, 휴게소에도 키오스크 → 무인 주문기 가 대중화되고 있다.
46	kick오프 회의	Kick off	첫 회의, 첫 기획 회의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의 kick오프 회의 → 첫 기획 회의 가 열렸다.
47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늌터, 시험대, 성능 시험장	국내 첫 12인치 반도체 테스트 베드 → 가늌터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48	핀테크	Fintech	금융 기술, 금융 기술 서비스	핀테크 → 금융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49	핫라인	Hot line	직통 창구, 직통 회선, 직통 전화, 비상 직통 전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급 핫라인 → 직통 회선 개선을 추진한다.
50	허브	Hub	거점, 중심, 중심지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 창업 허브 → 거점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말글 교육, 국어 관련 상담, 공공문장 감수 등 공공언어 사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재지
국립국어원	1599-9979	서울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033-250-8137	춘천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53-950-7497~8	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055-772-0768	진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044-860-1910	세종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051-200-7179~7180	부산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061-450-6271	무안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041-550-5391	천안
세종 국어문화원	02-735-0991	서울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67-0861	안양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53-810-3561, 3628	경산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052-259-1911	울산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02-3277-3250	서울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032-860-8394	인천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62-530-0313	광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3-220-3095	전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64-754-2712, 2738	제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29-8311	청주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043-261-3450	청주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02-781-3838	서울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02-780-5084	서울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042-629-7474	대전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031-400-4513	안산
국어문화원연합회	02-2669-9605	서울

독자 의견 청취 행사

국민 모두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문화연대와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항상 함께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1. 한글문화연대가 발간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를 읽고 난 소감을 적어주세요.
2. 이번 여름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3. 앞으로 <쉬운 우리말을 쓰자>가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휴대전화 독자 의견 청취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빠르고 간편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 참여방법

-
- 휴대전화에서 검색창(네이버, 다음 등)을 열고 정보무늬(QR) 접속창을 연다.
 - 접속창을 연 상태에서 소식지에 가입된 정보무늬(QR)를 촬영한다.
 -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 청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정부, 공공기관, 언론의

외국어 남용에

2023.
7.03.~
9.17.

총 상금
1,000만 원

시상내역

으뜸상
200만 원(각 1명)
 버금상
100만 원(각 1명)
 보람상
50만 원(각 3명)
 복돋움상
20만 원(수기 2명)
30만 원(영상 2명)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

10.02.(월) 수상작 발표

수기분야

주제 ①공공언어에서 쓴 어려운 외국 낱말 때문에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경험
②어려운 외국 낱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 서 좋았던 경험

분량 신청서의 지정된 양식(A4) 2장 이내

방법 ①수기 작성 후 공모전 페이지 콘텐츠스트 참여하기 후
'수기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올리기 (제목: 수기응모_이름)

▲정상 접수 여부 필수 확인

②붙임 문서 '수기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 gongmo@stunning.kr로 제출 (제목: 수기응모_이름)

참고 사진 포함 가능 (분량에서는 제외)
어디에서 어떤 말로 겪었던 경험인지 반드시 밝히기
"가족"이 겪었던 경험도 응모 가능

문의 공모전 페이지 내 문의 게시판
누리집 : 쉬운 우리말을 쓰자! www.plainkorean.kr
전자 우편: gongmo@stunning.kr

공모안내 * <https://www.loud.kr/contest/view/102994/brief>
* 누리집 '쉬운 우리말을 쓰자!'
www.plainkorean.kr 알림>행사 참조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
①전자 우편으로 접수
②라우드소싱에서 전문가로 가입 후 참여 ▶



영상분야

주제 ①공공언어에서 쓴 어려운 외국 낱말 때문에 불편하거나 곤란했던 경험
②어려운 외국 낱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서 좋았던 경험
③어려운 외국어와 쉬운 우리말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함

분량 1~3분 이내 길이(1920*1080 픽셀 이상) 장르, 촬영기법에 제한 없음

방법 ①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전체 공개)
공모전 페이지 콘텐츠스트 참여하기 후
'영상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올리기 (제목: 영상응모_이름)

▲정상 접수 여부 필수 확인

②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전체 공개)
붙임 문서 '영상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 gongmo@stunning.kr로 제출 (제목: 영상응모_이름)

참고 영상 마지막에 한글문화연대 상징 반드시 넣어야 함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에 [쉬운말공모전] 말머리가 꼭 들어가야 함
해시태그 표시 필수(#쉬운우리말을쓰자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연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문화연대

<https://www.urimal.org>



9 772951 011008 3 2
ISSN 2951-0112(32)